50 헥타르 가정농장 다루는 귀농 청년 리태우

기계화 농사와 디지털 판매로 귀농의 본보기로 거듭나련다

서란시 빈해가두 영춘촌의 드넓은 논판에 서서 리태우(36세)는 미소를 지으면서 "할아버지가 이 땅을 처음으로 개간한 지 벌써 2대가 지났어요. 제가 3대째입니다."라며 리씨 가족 3대에 거친 농사이야기보따리를 풀어놓았다.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두 아들인 저의 큰아버지와 둘째아버지를 안고 이 촌에 와서 열심히 땅을 개간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농사는 가족이 함께하는 일상이였죠." 조상 대대로 이어진 '농업 유산'을 이야기하는 리태우의 눈빛이 밝아졌다. 1989년생으로 그는 아직 젊지만 할아버지와 아버지 리종문(63세)이 다루어온 이 땅과 벼농사에 대한 책임감을 어깨에 짊어지고 있었다.

"할아버지가 영춘촌에 이주해 황무지를 개간하여 시작한 논농사는 큰아버지와 아버지 세대를 거쳐 지금 50헥타르로 그 규모가 크게 확장됐습니다." 어렸을 때 아침 일찍부터 해질녘까지 농사를 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봐왔던 리태우는 "벼이삭이 무르익어가는 소리와 고향의 흙냄새가 저에게는 편안함 그 자체였어요."라고 말한다.

2000년대초 한국에 가서 일을 시작한 아버지 리종문은 2012년 건강문제로 10여년 만에 고향마을로 돌아오게 되였다. "그때 저희 큰아버지는 이미 오래동안 농사를 해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오자 큰아버지가 자신이 부치던 논을 넘겨주면서 저희 아버지는 전문적으로 농사를 짓게 되였습니다."

그때는 논이 얼마 되지 않았다. 가족들이 대부분 외지로 로무를 떠나다 보니 그들 명의의 논을 8헥타르 정도 임대하여 부칠 수 있었다. 그리고 크게 기계화 작업이 없이도 인력으로 할 수 있었다.

2009년에 서란시조선족제1중학교 고중을 졸업한 리태우는 친구들과 함께 청도로 떠났다. 호프집 일과 대리운전을 하다가 2014년 한국으로 갔다. "처음에는 지인의 이사짐회사에서 일했는데 월급이 높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사현장으로 갔죠. 새벽 4시 30분에 기상해 12시간 동안 철근을 날랐습니다." 그의 손에는 그동안의 고달픈 로동의 흔적이 남아있다. 10년간 모은 돈은 고작 고향 서란시에 아빠트 한채를 살 수 있는 정도에 그쳤다. "한국에서 보낸 시간은 힘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서서히 고향에 벼농사를 떠난 아버지의 마음을 리해하게 된 것 같아요. 이제는 내가 도와야 할 때라고 생각했지요." 이 결심은 가족을 지키는 선택이자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3세대에 거친 유산을 이어가기 위한 숙명이였다.

기계화 노력은 지난 10년간 꾸준한 투자로 이어져왔다. 리종문과 리태우 부자는 농기계 구입과 시설 확충에 총 100만원 가까운 자금을 투입하며 단계적인 현대화를 추진했다. 뜨락또르와 파종기 도입을 시작으로 건조대 무인기까지 장비의 확보에 집중했다.

특히 지난해 도입한 건조기는 그의 투자 결실을 상징한다. "과거처럼 세멘트 바닥에 벼를 널어 말리는 방법은 날씨 영향을 많이 받게 되죠. 2년전에 이상하게도 벼를 말리려고 하면 비가 왔던 것 같습니다. 벼를 걷어 트럭에 실으려다 알갱이가 깨지거나 비물에 젖으면서 손실이 아주 컸습니다." 긴급 수확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리적 손상과 변질로 생산량을 확보하기 어려웠다.

건조기 도입후 이러한 고민이 근본적으로 해소됐다. 기계를 가동하면 24시간 내내 일정한 온도와 습도 유지가 가능해져 날씨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됐다. 특히 수확 직후 즉시 건조공정에 들어갈 수 있어 품질을 보장하는 동시에 건조할 때 날씨로 인한 손실을 최대한으로 낮출 수 있었다. "예전에는 비 올 때마다 급하게 움직여야 했는데 이제는 기계가 알아서 처리해줘요." 인력 부담이 크게 줄어든 덕분에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서 그동안 놓쳤던 세부적인 사항까지 손볼 수 있게 됐다.

리태우의 말에 따르면 지금은 과거에 비해 기계화 진입 장벽이 낮아진 상황이고 정부 보조금 지원으로 초기 투자 부담이 완화됐다. 과거 50헥타르 규모의 논농사를 지으려면 마을 인력의 절반가량을 동원해야 했지만 현재는 15명 내외로도 운영이 가능해졌다. 특히 파종과 경운 단계에서 기계가 로동력을 대체하여 인건비 부담이 크게 줄었다. 다만 모든 벼농사 과정에 기계를 도입할 수 없어 여전히 인력이 필요해 촌에 계시는 어르신들을 시간제로 고용하고 있다.

리태우의 기계화 도전에는 아버지 리종문의 수십년 농사 경험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였다. "무인기와 뜨락또르 조작은 제가 하지만 땅의 변화를 읽는 데는 실농군 아버지의 손길이 필요해요." 리종문은 계절별 기후를 예측하고 전통 벼농사의 정밀한 노하우를 꿰뚫고 있다. 가뭄 시 논두렁 보강법부터 장마철 배수로 관리법까지 리종문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 다음 목표는 50헥타르 규모의 가정농장을 한층 더 확장해 완전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도 그는 전통과 기술의 균형을 잃지 않으려 한다.

지난해 우연히 고추를 말려서 고추가루를 제작하는 영상을 위챗에 올렸는데 많은 인기를 얻게 되였다. "원래는 저희 가족이 먹고 친척들에게도 조금 나눠줄려고 했는데 주문이 들어와서 그냥 팔게 되였습니다. 그렇게 지난해에 고추가루 300근을 팔았습니다." 여기서 힌트를 받아 리태우는 벼농사 영상을 제작하여 위챗에 올렸다. 자연스러운 일상 속 농사 현장이 오히려 소비자들의 공감을 샀다. 화려한 편집 없이 진솔하게 보여준 논밭의 모습은 네티즌들 사이에서 신속하게 '입소문'을 타면서 그들 입쌀이 멀리는 신강, 해남도까지 전국 각지에 널리 팔려나갔다. 지난해는 온라인에서 총 4만근을 팔면서 수입도 일정하게 올렸다.

"기계화로 생산성을 높이고 디지털 판로로 수익을 안정화하면 도시보다 더 나은 삶을 설계할 수 있어요." 리태우는 자신의 농장을 청년 귀농 본보기로 활용하려는 구상도 하고 있었다.

/ 정현관 류향휘 기자

청년들, 흥취를 기반으로 함께 즐기는 '가벼운 소개팅' 선호

'련애 예능식 려행', '온라인 확인, 오프라인 모임'…

현재 흥취를 기반으로 함께 즐기는 소개팅이 청년들 속에서 환영을 받고 있다.

일전, 중국청년보사 사회조사중심과 설문넷이 함께 진행한 조사에서 1,339명의 응답자중 73.9%가 주변에 흥취를 기반으로 함께 즐기는 '가벼운 소개팅' 활동에 참가한 젊은이가 있다고 밝혔다.

하북성 석가장에 거주하는 요요는 올해 27세이다. 그는 주변에 남성이 적고 온라인 련애는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얼마전, 그는 친구의 초청을 받고 친구 사귀기 활동에 참가했다. 그는 "련애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지만 연분을 믿는 편이다. 주말을 함께 즐기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친구도 사귀는 활동이라면 참가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조사에서 53.2%의 응답자가 소개팅에 참가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요요가 참가한 활동은 파티관에서 조직한 친구 사귀기 활동이였다. 그는 "전반 과정이 아주 편했다. 우선 자아소개를 하고 이어 영화를 관람하고 자유롭게 팀을 무어 게임을 했다. 당구, 노래, 보드게임 등을 할 수도 있고 그냥 앉아서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다."고 소개했다.

조사에서 73.9%의 응답자가 주변에 흥취를 기반으로 함께 즐기는 '가벼운 소개팅' 활동에 참가한 젊은이가 있다고 밝혔고 그중 16.5%의 응답자는 '아주 많다'고 밝혔다.

북경리공대학 석사연구생 진희는 모 공식계정에서 조직한 '1주 CP' 활동에 참가했는데 지난 양력설에 '솔로 탈출'에 성공했다. 그는 "줄곧 솔로였다. 성격이 맞는 사람을 만나고 싶었지만 현실에서 주동적으로 말을 건네는 편이 아니였다. '1주 CP'라는 온라인 친구 사귀기 활동을 보고 곧바로 신청했다."고 말했다.

진희의 소개에 따르면 '1주 CP' 활동에 참가하는 사람은 사전에 기본자료와 만나고 싶은 상대에 대한 요구를 작성해야 한다. 그러고 나서 시스템이 짝을 맞춰주면 두 사람은 위챗을 추가하여 함께 임무를 완수한다. 두 사람은 련속 7일간 여러 임무를 완수해야 하는데 내용은 자아소개, 함께 게임하기, 함께 노래 듣기, 전화하기, 퍼즐 맞추기, 련애편지 쓰기, 만나기 등이다.

조사에 따르면 사람들이 흥미를 느끼는 '가벼운 소개팅'의 형식은 주요하게 다음과 같다. 온라인에서 짝을 맞춰 임무를 완수한 후 현실에서 만나기(54%), 독서, 미식, 운동 등 취미 동아리를 통한 친구 사귀기(52.7%), '련애 예능식 려행' 등 려행하며 협력하여 임무 완수하기(52.4%)이다.

요요는 려행 형식의 소개팅을 비교적 기대했다. 그는 "려행중에 평소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려행중에 모순이 생기기 쉽기 때문에 상대방이 믿음직한지, 인품은 어떤지를 볼 수 있다. 한번 만나서 몇시간만 함께 있는 맞선보다는 려행을 통해 한 사람을 더욱 깊이 료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젊은이들은 왜 '가벼운 소개팅'을 선호하는가? 62.2%의 응답자가 "분위기가 편안하고 어색함이 줄었다."를 선택했고 52.9%가 "온라인을 통해 교류하려는 젊은이들의 기호에 순응했다."를 선택했으며 50.9%가 "자주성이 강하고 관여가 적다."를 선택하고 47.8%가 "공동한 취미를 기반으로 하여 짝을 맞춰주기에 적합도가 높다."를 선택했다.

절강성심리건강촉진회 성원이며 항주시총공회 특별초빙 혼인련애전문가인 릉자는 "정식적인 소개팅은 목적성이 너무 강하기에 편안함이 크게 줄어든다. 재미가 있는 다양한 형식은 편하게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서로가 행복을 찾아나서는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한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다. 현재 일부 젊은이들은 상대방을 깊이 료해하는데 시간을 들이려 하지 않고 지나치게 물질조건, 학력을 보는데 그렇게 하다가는 맞는 사람을 놓치기 쉽다. 새로운 친구를 만나듯이 상대방과 교류하고 우선 서로를 료해하고 나서 감정을 건립해야만이 오래갈 수 있다."고 밝혔다.

/ 중국청년보

례단과 연회 취소하고 16.6만원을 희망공정에 기부

■ 결혼식에서 최고의 의식감은 무엇일가?

동활과 양찬욱, 이 '95후' 젊은 부부에게 있어서 16만 6,000원을 기부하여 4개 소학교에 희망공정 '과학기술 귀요미(科技萌娃)' 실험실을 건설한 것이 바로 최고의 의식감이였다.

■ 자신의 저축을 미래를 밝히는 성화로 변화시키다

4월 21일, 동활과 양찬욱은 결혼식을 올렸다. 결혼식을 간소화하기로 했기에 례단과 본식 연회를 생략하고 번거로운 절차를 건너뛰였지만 한가지 선행은 유난히 의식감이 있었다.

두 사람은 결혼식에 앞서 하북성 희망공정에 16만 6,000원을 기부하여 4개의 소학교에 희망공정 '과학기술 귀요미' 실험실을 건설하기로 결정했다. 실험실이 건설되면 학교의 교육환경이 크게 향상될 뿐만 아니라 교사들도 실험실의 시설과 기자재를 리용하여 학생들에게 과학지식을 가르칠 수 있다.

'과학기술 귀요미' 대상은 공청단 하북성위에서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민생 대상이다. 4년간 이미 대상 자금 800만원을 마련하여 전 성 200여개 향촌 소학교에 과학기술실험실을 건설하였고 수천명의 향촌소학교 교사와 과학기술 자원봉사자를 육성시켰으며 10여만명의 학생들이 혜택을 받았다.

"저축을 결혼식의 시끌벅적함에 쓰는 것보다 미래를 밝히는 성화로 변화시키는 것이 낫다."고 동활은 말했다.

결혼식에 앞서 동활과 양찬욱은 자기들이 기부한 학교인 형대경제개발구동화로실험소학교의 학생들로부터 정교한 그림이 그려진 돌 한쌍을 선물로 받았다. "우리는 다이아몬드와 황금 장신구를 사지 않았다. 이 선물은 우리에게 다이아몬드보다 더 소중하다."며 "우리가 받은 최고의 결혼 선물이다."라고 양찬욱은 말했다.

■ 과학기술실험실의 이름을 '비익(比翼)'으로 결정하다

두 사람은 과학기술실험실을 '비익'이라고 명명했다. 이는 두 사람이 항공모델 과학기술 활동에서 만난 것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드론 모델, 비행기 모델에 대한 학습을 통해 마음속에 '항공보국'의 씨앗을 심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됐다.

동활과 양찬욱은 모두 석가장시 신집진육홍중학교의 학생이였고 모 과학기술경연대회에서 처음 만났다. 그후 대학을 졸업하고 정식으로 교제하게 되였다. 그들에게 모교는 학습하고 성장한 곳일 뿐만 아니라 인연이 시작된 곳이기도 한바 아주 특수한 의미가 있는 곳이였다.

■ 영웅은 소견을 같이한다

결혼을 준비하면서 두 사람은 어떻게 하면 결혼식을 더 의미있게 진행할 수 있을지를 상의했다. 그들은 모교에 편지를 보내 학교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선생님들은 현재 학교에 과학기술실험실과 관련 설비가 비교적 부족하다고 회신했다. 이에 양찬욱은 "아예 돈을 기부하여 아이들에게 과학기술실험실을 지어주고 싶다."고 동활에게 의견을 말했다. 동활은 "영웅은 소견을 같이한다."며 동의했다.

동활은 기부식에서 "사랑은 서로간의 부축일 뿐만 아니라 세계에 대한 선의와 책임이다. 우리가 오늘 뿌린 과학기술의 씨앗이 결국 래일 국가 발전을 지지하는 기둥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 인민넷

장백현, 청춘 남녀들 단체소개팅 가져

일전, '인연은 장백에서, 정은 변강에서'를 주제로 하는 청년친목활동이 장백변경관리대대 21도구 변경검문소에서 진행되였다.

이번 행사에 변경관리대대 및 현지 기업과 기관 소속 우수청년 40명이 참가했는데 최종 14쌍의 청년들이 현장에서 련락처를 교환하며 변경 수호와 청년 우정의 아름다운 장면을 만들었다.

오전 9시, 행사는 장백변경관리대대 영예실에서 막을 올렸다. 참가자들은 해설원의 안내에 따라 영예실을 관람, 벽면을 가득 메운 상장과 트로피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영예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듣고 많은 녀성 참가자들은 경찰들의 평소 로고를 알게 되였다.

오전 10시, 21도구 변경검문소에서 실전을 방불케 하는 훈련이 펼쳐졌다. 자욱한 연기 속에서 신속대응팀 12명의 대원들이 '기지 방어 작전'을 선보이며 참가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이어 진행된 시범공연에서는 단단한 벽돌을 손으로 가르는 장면, 경찰 장비를 활용한 다양한 기술시연 등이 펼쳐지며 경찰들의 강인함과 전문성을 생생히 보여주었다. 관람석에서는 감탄이 터져나왔다. 한 녀성 참가자는 "변경 경비에는 단순히 순찰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고도의 훈련이 필요하다니 놀랍다."고 감탄을 표했다.

정오 무렵, 야영지에 밥 짓는 연기가 피여오르며 행사는 편안한 교류시간으로 접어들었다. '만두 빚기 대회'에서는 남녀가 팀을 이루어 서로를 돕는 모습이 눈길을 끌었다. 이마에 밀가루를 묻히며 허둥대는 모습에 주변에서는 웃음이 터져나왔으며 리수부 경위와 오천학 경위의 노래로 분위기는 최고조에 달했다.

행사를 마무리하며 참가자들은 자연스럽게 친분을 나누었고 특히 14쌍의 청년들이 서로의 련락처를 교환하며 앞으로의 인연을 기약했다.

행사에 참여한 현녀성련합회 대표는 "'변경을 지키며 사랑을 찾는다'는 취지가 좋은 인연을 맺어줄 뿐만 아니라 변경 수호 사업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다리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오건기자, 리준량(李俊良)